

“가장 큰 장점 ‘대단지’… 가격부담에 작은평형 청약 계획”

Q 르포 | 장위 10구역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가보니

지난 26일 문을 연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견본주택은 평일 오전부터 방문객들로 붐볐다. 유닛 관람을 기다리는 줄이 이어졌고, 청약 상담 창구도 반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장위뉴타운의 대단지인 만큼 신축 아파트와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수요자의 발길을 이끌었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대우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재정비촉진지구 10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에 들어서며, 총 1931가구 가운데 10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장위뉴타운은 서울 강북 최대 규모 정비사업이다. 15개 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3만 가구 이상 규모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단지는 6호선 돌곶이역과 가깝고, 시청역과 신사역 등 주요 업무지구로 30분 안팎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이용도 편리하며, 향후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추진에 따른 교통 개선 기대감도 있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장위초등학교와 연결한 ‘초품아’ 단지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약 1.5km 안에 월곡중, 남대문중, 장위중, 석관고 등이 있으며 장위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북서울꿈의숲 등 생활·문화시설도 가까운 편이다.

견본주택 내부에는 전용 59㎡ A타입, 74㎡ B타입, 84㎡ C타입 등 3개 유닛이

마련됐다. 전용 59㎡ A타입은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조성됐다. 안방과 마주보는 구조의 작은 침실은 입주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취미방이나 서재, 드레스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59㎡ A타입에는 안방 드레스룸이나 별도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용 59㎡ E타입은 4베이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이 포함된다.

전용 74㎡ B타입은 타워형 구조다. 거실과 주방 사이 시야가 트여 있어 개방감이 두드러진다. 주방은 수납 기능을 강화한 구성이 눈에 띈다.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벽면 수납장을 통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와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마련돼 의류와 생활용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대단지와 뉴타운 개발 기대감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분양가 부담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결혼 후 신혼집 마련을 위해 견본주택을 찾았다는 이모씨(33)는 “아무래도 대단지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며 “장위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주변에 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기동에 거주 중인 예비 신혼부부 최모씨(33)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큰 평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39㎡부터 가능하면 59㎡까지 청약을 넣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상옵션까지 추가하면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견본주택 74㎡ B타입 거실.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성채리 수습기자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 총 1931가구 중 1032가구 일반 15개 구역 개발 완료시 3만가구 최고 분양가 7.5억~21.7억 수준 “국평 17억 비싸다고 인식 했지만 현 시세와 비교시 수용 가능 수준”

실제 체감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의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는 ▲39㎡ 7억5120만원 ▲46㎡ 8억8240만원 ▲51㎡ 11억1080만원 ▲59㎡ 14억6060만원 ▲74㎡ 15억9200만원 ▲84㎡ 17억6570만원 ▲101㎡ 19억4570만원 ▲114㎡ 21억7140만원 수준이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5034만원이다.

장위뉴타운 내 신규 분양 단지의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2022년 분양한 장위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최고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0억2000만

원대였다. 재작년 공급된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의 경우 12억1000만원대에 분양됐다. 이번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17억원 넘게 책정되며 장위뉴타운 분양가 기준을 다시 끌어 올렸다.

분양 관계자는 “두세 달 전만 해도 국평 17억원대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점을 이번 청약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만 1032가구에 달한다.

현장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이번 청약 성적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위뉴타운 개발 기대감, 대단지 프리미엄 등이 수요자 관심을 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근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분양이 다가온 만큼 문의가 많다”며 “방금 전에도 장위10구역 조

합원 매물을 사고 싶다는 손님이 다녀갔고 토요일에 입장을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뉴타운으로 대단지가 조성되는 데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예전에는 ‘강북, 노원에 14억원 분양가가 웬 말이나’는 반응이었지만 지금은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청약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해당지역, 7월 1일 1순위 기타 지역, 2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3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당첨자는 7월 8일 발표되며 계약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30년 9월 예정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최고금리 19.4% 청년미래적금 가입하세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3년간 50만원 납입 최대이자 93만원 13개 은행서 내달 3일까지 가입신청

정부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다음 회차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로 예정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오는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직전 연도인 2025년도에 소득이 있어야 이번 회차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내년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에 해당하고 연 75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소득이 6000만원 이하만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은 12%의 기여금을 제공하는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기여금과 별도로 이자도 제공한다. 금리는 연 5%의 기본금리에 가입기간별 2~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연 7~8%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3%를 적용하고 만기까지 매달 50만원을 3년간 납입한다면 일반형은 88만원, 우대형은 93만원의 이자액을 더 받게 된다. 실질 금리는 우대형을 기준으로 최고 연 19.4%의 적금과 맞먹는다.

청년미래적금은 국내 13개 은행(국민·

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기업·부산·iM·경남·광주·전북·키카오) 및 우체국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시 오는 7월 24일까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소득 심사를 진행하며, 가입이 승인되면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요건은 급여이체, 카드발행 및 사용 실적, 최근 거래 여부 등을 포함하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의 경우 금번 1회차 가입 신청에서만 가능한 만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적합한 상품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갈아타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안승진 기자 asj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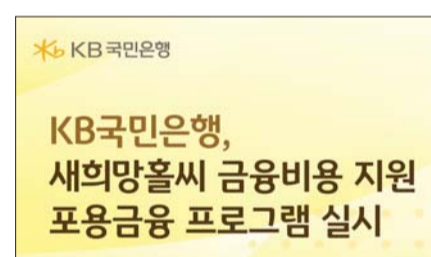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II’ 금융비용 지원

‘행복 희망프로젝트’ 일환

KB국민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II 금융비용 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KB금융그룹의 ‘KB국민 행복희망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 3월 ‘KB새희망홀씨II’ 상품 신규대출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한 데 이어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채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대출금리 7%를 초과하는 이자 부담분을 지원해 고객의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



객은 대출잔액을 줄이고 향후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함께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KB국민은행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II로 전환한 고객 가운데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고객이다. 지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 고객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이번주 전국 14개 단지 816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성북 ‘장위푸르지오마크원’ 등 청약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816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541가구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 경북 경산

시 중산동 ‘펜타힐즈더블유1단지’,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신문센트럴아파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일원에서 ‘김해신문센트럴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84~128㎡ 총 1379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약 55만㎡ 부지에 주

거단지를 비롯해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남해제2·3고속도로지선 등을 통해 부산, 창원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수월하며 롯데아울렛,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시네마 등 상업시설이 근거리로 위치한다. 지난해 9월 개교한 신문초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모텔하우스는 경기 성남시 동원동 ‘e편한세상분당파스트빌리지(A1블록, 신혼희망타운)’, 경남 김해시 내동 ‘트리본김해’ 등 2곳이 오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SCoRE AI’ 구축 완료·가동

신한금융그룹이 그룹 공동 내부통제 플랫폼인 ‘신한 재무이행관리시스템(SCoRE AI)’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한 ‘SCoRE AI’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SCoRE AI’는 AI가 수많은 소관부서의 점검 활동을 요약·분석해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인 임원의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뒷받침한다. ▲임원별 책무 항목 점검 및 증빙자료 자동 검증 ▲소관부서 점검 내역 요약·분석으로 충실도 객관 평가 ▲

금융사고·제재·법령 개정 등 외부 이슈 주 기적 수집·브리핑을 토대로 임원이 지시 사항을 등록해 점검 항목에 반영하는 실효적 관리 체계를 갖췄다.

그룹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AI 에이전트 확장도 용이한 인프라 기반으로 구축됐다. ▲그룹 자체 서버에 직접 구축해 보안성 및 범용성 동시 확보 ▲내부 데이터(핵무기구조·점검내역·내규 등)와 외부 데이터(법령·감독당국 공시뉴스 등) 통합 분석 ▲최신 규제 환경 반영 및 대응 방향 제시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AI 활용 기반을 갖췄다. /나유리 기자 yul115@